

일본 양초

혼다목랍 공작소는 전통적인 일본 양초를 제조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화학 추출이 아닌 기계 프레스로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마바라에서 처음 촛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18세기 말경으로 1792년 시마바라 대변의 지진과 쓰나미로 시마바라가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후였습니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게 영주는 환금작물로 양초의 원재료가 되는 검양옷나무 재배를 장려했는데, 1990년부터 1995년에 걸쳐 발생한 헤이세이 대분화로 대규모 식림지가 파괴되어 소멸 직전의 공예품이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물론 현재는 보다 효율적인 밀랍 추출 방법이 있지만, 새로운 방법은 양초가 탈 때 용출되는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혼다목랍의 점주들은 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에 열정을 쏟았으며, 1950년대에 만들어진 '다마지메식 압착기'로 고객에게도 환경에도 좋은 밀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법으로 만들어진 양초의 불꽃은 일반 양초의 3~4배나 되며, 선명한 주황색으로 흔들림에도 운치가 있습니다.

공방을 방문하면 이 전통 공예품의 풍부한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밀랍을 추출하기 위해 부수는 검양옷나무 열매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옛날 기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양초 만들기 교실을 개최하고 있으며, 장식성이 높은 양초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